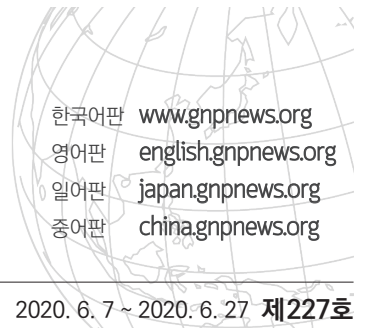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중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6. 7 ~ 2020. 6. 27 제227호



▶ 세네갈의 한 소녀(제공: WMM)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넓은 흠에 한 소녀가 앉아 있다. 작은 체구지만 팔망팔망한 소녀의 눈빛에서 아무진 기운이 전해져 온다. 나아만 장군의 시중을 들던 그 소녀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나병에 걸린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는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찾아가 보라고 말한다. 어린 소녀의 말이었지만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다. 엘리사는 황당한 요구를 한

다.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분노하며 돌아가려던 나아만에게 소녀가 다시 이야기한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고 깨끗해진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 앞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

조주이고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소녀와 같이 신분을 뛰어넘어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며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GNPNEWS]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이사야 42:6-7)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코로나 사태, 교회 본질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본지는 전화 통화를 통해 국내 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직접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청취했다. 최종덕 목사(문광교회, 경기기도 광주시)는 “2주 정도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80%정도”라며 “함께 식사도 못하고 행사 자체를 가질 수 없다 보니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교회는 “현장예배 참석은 과거에 비해 60% 정도며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이웃을 섬기는 목적이 희박해지는 시간이 걸릴 듯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않은 반전의

상황도 나타났다. 유정원 목사(예일교회, 서울시 서초구)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기도제목도 내고 교제도 나누며 해외에 있는 분들과 기도모임도 갖는 등 인터넷 예배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임치운 목사(반석중앙교회, 대전시 서구)는 “기존 교회에 가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평소에 비해 6~7명이 더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이웃을 섬기는 목적이 희박해지는 시간이 걸릴 듯 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않은 반전의

모임 참석이 줄어들면서 헌금이 줄어들어 선교사 후원이 줄거나 교회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목회자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 교회인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린도후서 6:10) **기도** | 사랑하는 주님, 위기의 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는 믿음이 실제 되게 하실 주님을 의뢰합니다. [GNPNEWS]

다음 호는 6월 28일자로 발행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11)

기막힌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이란?

임종을 앞 둔 말기 암 환자나,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뇌성마비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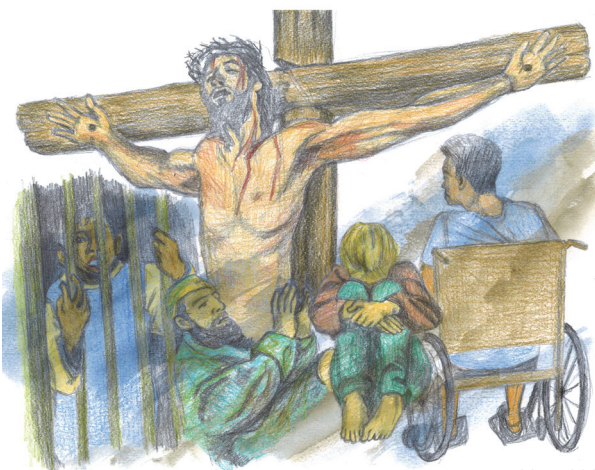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실 수 있을까요? 북한은 어떤가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과연 이들에게도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 하며 전할 수 있을까요?

고개 한 번 들지 못하고 찬송 한 번 부르지 못하게 감금된 채 신음하는 기막힌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평생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밝은 날 한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처지 누구에게라도 복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끄러운 혈통과 가문, 짧은 학력, 두려움 많은 빈약한 인격, 가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살할 이유가 수십 개였던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더 구할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복음이 되어 주시

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울바로 갈 때도 헛갈릴 때도 그분은 복음이십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날 힘이 되어 주시고 두려울 때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실패했을 때 다시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회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본적인 해결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호姆 하나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년 전화는 삼기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이집트, 3년간 1638개 교회 합법화... 위협은 여전



▶ 이집트 콥틱 교회(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인구의 90% 정도가 무슬림인 이집트에서 최근 70개 교회가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기독교 교회의 수가 1638개에 이르렀지만 교회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난 2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교회 건물의 합법화를 관장하는 승인위원회가 2017년 1월에 설립된 이후, 1638개의 교회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집트 지역 당국은 종교 간 시위가 발생하

자 알베헤라의 콥 알-파라그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철거하려 했다. 1층짜리 이 건물은 지난 15년 동안 예배 장소로 사용됐으며 최근 늘어나는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2개의 층을 더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 간 갈등의 계기가 됐다. 고대 이슬람 전통(일반법)에 의하면, 모스크 옆에 지어진 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지

역의 무슬림들은 이 교회 건물의 합법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건너편에 모스크를 지었고 지역 당국은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 건물과 모스크를 모두 철거하려 했다. 이를 막고자 했던 지역 사제와 4명의 여성들을 포함해 14명의 기독교인들은 체포됐다.

이에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멜빈 토마스 총재는 "CSW는 이집트 내 더 많은 교회들의 합법화를 환영하며, 이집트 행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태도와 관습을 개혁하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콥 알-파라그의 교회와 모스크가 모두 파괴된 것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종교 간 긴장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 당국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중재를 형성하고 이를 종교 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GNPNEWS]

홍콩, "1국가 2체제는 붕괴"... 공산당 악행 멈춰줄 외국에 지원 호소

중국 정부가 지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홍콩 대학생들은 이미 '1국가 2체제'는 실패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악행을 멈춰줄 외국에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이공대 학생회는 지난 2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보안법을 통과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홍콩 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반(反) 정부 집회의 상당수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홍콩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악행을 멈춰줄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며 이 싸

움을 '국제적 전선'으로 확대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켜, '1국가 2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한편, 지난 24일 홍콩섬(香港島) 변화가에서 대규모 반(反) 정부 집회가 열린 이래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파 시민들과 홍콩 정부 사이의 갈등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 톱러완(銅羅灣)과 완차이(灣仔)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홍콩 경찰 측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살수차(撒水車)와 장갑차를 동원해 기자들과 '시대혁명(時代

革命)' 등의 슬로건을 외치는 행인들을 향해 물을 뿌리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방화와 경찰측 기물을 파손,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생회는 "이날은 대략 200여 명이 불법으로 집회를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번 전인대에서 발의된 보안법은 홍콩의 민주파 시민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이 법률은 국가반역 및 간첩 행위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서, 보안법이 통과된다면 홍콩 상황은 중국 본토만큼이나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GNPNEWS]

이란서 아버지가 14살 딸을 살해... 명예살인 반대 여론 높아

이란에서 최근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명예살인이 벌어져 명예살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벌어지는 한편, 언론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라디오 파르다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1일 레자 아슈라피라는 남성이 수도 테헤란에서 북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탈레쉬에서 14살 된 딸 로미나가 잠든 사이 낮으로

살해했다. 로미나는 바함 카바리라는 34살의 남성과 사랑에 빠져 함께 도망쳤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닷새 만에 붙잡혀 왔다. 이란 등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남성보다는 함께 도주한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들은 지난달 27일 이

기사를 크게 다루며 명예살인을 비난하는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도 로미나가 처참하게 살해된 것과 관련해 명예살인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단순한 살인일 뿐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란 의회에는 이미 명예살인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 18 ~ 5. 30)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코로나 희생자 애도의 날 가진다

미국 내 코로나19 희생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가 5월 31일 오순절 주일을 맞아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생명들을 위한 애도의 날을 갖고 기도회 동참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하나님,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애도의 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하라" 총신대에 요청 쇄도

총신대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결정에 대해 총신대 교수를 비롯 다양한 기관에서 해임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과학연구협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성명과 공문, 자유게시판을 통해 이상원 교수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며 해임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동성애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 말하는 교수를 퇴임시킨 총신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배움 받는 신학도들이 진리에 부딪히고, 진리가 결론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신학교에 거룩한 부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위스, 코로나 조치 완화하면서 성매매 허용... 유도·복싱은 금지

스위스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영화관과 나이트클럽 등의 영업과 함께 성매매를 허용했지만 유도·복싱, 레슬링 같은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스포츠 활동은 계속 금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죄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를 보이며 공정성을 잃은 우리의 죄인된 존재를 직면합니다. 스위스를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는 생명임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채널... 이단 콘텐츠 가득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이단이 만든 영상물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등 온라인 채널 속 이단 콘텐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국민일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단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님, 사람들이 끝없는 자극을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이 만족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악한 물결이 범람하는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도록 도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6월 8일 ~ 6월 20일

- 6월 8일 ~ 6월 13일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이**)010-3737-3629,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9(11~16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6.11(0~24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4011-6719, 6.11(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6.11(20~22시) ▶ 대전 서구 / 광야아들교회(정**)010-3697-0641, 6.12(10~12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6.12(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6.12(22시)~13(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6교회 진행중.

- 6월 15일 ~ 6월 20일 ▶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6.15(0시)~17(24시) ▶ 경기 남양주 / 로고미션(김**)010-4715-3727, 6.15(10시)~20(17시) ▶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6.15~19(14~17시)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15,17~20(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6.16,18~20(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6.19(10~14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6.19(13~24시) ▶ 경북 울릉도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6.19(19~21시) ▶ 전북 완주 / 상관교회(김**)010-4743-9397, 그 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기획 | 한국을 다시 경건하게 (2)

조선의 탈(脫)쇄국정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

위기의 한국 사회. 예레미야는 앞 드러지고, 거꾸러질 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기록하고 있다(렘 6:16). 이 땅에 허락된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찾아 떠나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다시 되짚어 보며 이때 우리가 취할 바를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자. <편집자>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열풍은 '아랍의 봄'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외부에 폐쇄적인 아랍 사회가 시민들의 자유화 요구에 개방의 물꼬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이때를 중동 선교의 미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같은 기대는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선교를 위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140여 년 전인 1876년 3월 강화도에서 체결된 한국과 일본의 조일수호조약(일명 강화도조약)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이면서 국가 간 거래 경험이 없어 관세조항이 빠진 불평등 조약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시선은 남달랐다. 대원군과 유생들의 요구에 따라 '쇄국 정책'으로 견고하게 닫혀 있던 조선의 문지방이 서서히 열리는 전환점으로 인식된 사건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구로후네(黒線) 쇼크'라는 미국 함선의 위력 앞에 문을 열어야 했던 일본에 선교사의 발길이 이른 것처럼, 강화도조약은 조선 선교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나무로 만든 전통적인 배밖에 없던 일본은 '쇠'로 만든 검은 미국의 중무장 함선(黒線, 흑선)의 등장 이후, 1858년 미일수교조약

문을 2년만에 다시 찾았다. 로스는 그곳에서 의주 상인 이응찬을 만나 본격적인 성경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한국 최초의 쪽복음 성경책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발간하게 됐다. '예수성교(聖敎)'는 예수의 거룩한 가르침이란 의미다.

성경번역이 이처럼 그저 한 두 문장의 설명으로 기록되어 우리에

린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됐던 것.

성경번역이 한창이던 1879년 5월 로스는 그때부터 2년간 안식년을 떠난다. 그러나 그에게 그 기간은 스코틀랜드에서 단순히 안식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안식년 기간 중 그는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조선 안내서를 집필해 발간하고, 이 책자를 배포하며 조선 선교

공수 받았다. 그리고 인쇄를 위한 기술진도 필요했다. 2명의 중국인 인쇄공과 매약상(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람)으로 일하던 김청송이 식자공(활자를 배열하고 조판하는 일)으로 참여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지휘 아래 한국 근대 금속 활자로 한국어 책자를 인쇄하는 기념비적인 역사에 참여한 것이다.

금속 활자로 대량 인쇄의 길을 연 '누가복음'

로스에 의한 조선어 성경발간이 중국 심양에서 이뤄졌지만 한국어 활자, 한국인 참여로 이뤄진 근대출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도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인쇄 기술은 1883년 한성부(요즘의 서울시)의 박문국(출판국)에서 10일 간격으로 발간되는 신문 한성순보로 시작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로스의 한글 성경은 이보다 한 해 빠른 1882년 출간됐다. 이에 따라 선교사 자격으로 처음 입국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국어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선교 역사에서도 희귀한 일이다.

당시 인쇄 기술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입국하던 해인 1885년 8월 배재학당을 세우고 이듬해인 1886년에 근대식 활판 인쇄 시설을 갖춘 인쇄소를 개설해 선교와 계몽을 위한 전단지과 책자 발행에 참여했다. <계속> [GNPNEWS]

C.K.



▶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왼쪽)과 1876년 조일수호조약을 위해 모인 조선과 일본 관리들(출처: arabamerica.com, monthly.chosun.com 캡처)

를 맺고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다. 강화도조약은 이 같은 의미에서 당시 '조선 선교가 언제 열릴지 지켜보던' 동북아 지역 선교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동북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주목한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의 소식을 중국에서 접한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로스의 발걸음은 급해졌다. 이미 알렉산더 윌리엄슨 선교사를 통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1876) 소식을 듣고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로스 선교사. 그는 한국인 만나기를 기대하며 1876년 4월 한중 자유무역지대인 고려

게 전해져오고 있지만, 당시 인쇄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 활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뤄졌을까? 수천 권의 성경책 인쇄를 위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됐을까?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님은 로스가 홀로 이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로스와 함께 조선어 성경번역에 헌신의 열정을 쏟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로스의 매부(妹夫)이기도 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소천한 로스의 아내 대신 조카를 돌봐주기 위해 중국으로 찾아온 여동생 캐더

사역의 동역자를 모았다. 또한 조선어 성경책 인쇄를 위한 후원자도 발굴했다.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온 로스는 성경을 인쇄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돌아온 로스는 조선어 성경인쇄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책자를 대량으로 인쇄하려면 금속 활자인 납활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는 금속 활자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번역에 참여했던 서상륜 등과 함께 나무 활자를 만들어 일본에 보냈다. 이를 토대로 주조 기술이 있던 일본 요코하마에서 납활자를 제작, 3만 5000여개의 음절별 한글 활자를

📖 월드포커스

인도, 살인 사건 배후를 '기독교'라고 지목하며 음해... 언론까지 가짜뉴스 양산

최근 인도 서부지역에서 일어난 힌두교인 집단 살해 사건에 대한 배후를 기독교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위협에 처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전했다.

지난 4월 16일 마하라슈트라주 팔가르 지역에 위치한 가드친칠레 마을에서 400명에 가까운 갠그 조직원으로 성장한 폭력조직이 코로나 봉쇄조치로 검문소에 머물고 있던 힌두교 수도승인 마한트 칼파브룩샤 기리(70세)와 수실기리 마하라즈(35세), 운전기사 나레쉬 엘가테를 공격했다. 사건 당일 밤 9시쯤 폭력조직은 힌두교 수도승들의 차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산림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50여 명의 폭력배들의 저지로 사건현장 진입에 애를 먹었다. 경찰이 수도승 마하라즈와 운



▶ 예배 중인 인도의 그리스도인(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복음기도신문)

전기사 엘가테를 차에 태우자 폭력조직원들은 경찰이 강도와 납치범을 보호하려 한다면 비난했으며 수도승 기리를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공격해 남성 3명을 살해했다. 경찰관 4명은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인도형법에 따라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폭력배들을 살인, 살인 미수,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체포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인 사라함 신데는 "수도승 기리 일행을 살해한 폭력배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폭력배들이 현장에 있었고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집에도 잠입해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기독교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2만 4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힌두 민족주의자 싸카사밋은 트위터 통해 "이번 사건을 목격한 현지인들에 따르면 폭력배 대부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힌두교 지도자인 스와미 니살라난드는 4월 23일 트위터에 "힌두 수도승이 살해당한 가드친칠레 마을에는 반경 5km 이내에 18~20개의 교회가 있고, 기독교로 개종할 때

마다 2파운드씩 지불한다. 체포된 폭력배들은 개종한 크리스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과 결탁된 전국 TV 채널들은 교회와 지역 내 좌파들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특별 방송을 내보냈다. 인도 현지 언론 지뉴스(Zee news)와 리퍼블릭뉴스(Republic news)는 이 살인 사건을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적 음모로도 몰아가면서 소니아 간디 인도 국민회의 의장이 살인 사건과 연관 있다는 보도를 했다. 오피디아(Opindia) 같은 온라인 뉴스에서도 기독교 선교사, 좌파, 정치인들이 이 살인 사건에 가담했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35)

전 세계 270여 개 홍수 전설 존재... 대 홍수 있었다는 증거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창 6:11~12)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펀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창 6:13~14)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나무를 가져와서 커다란 배를 만들었다. 홍수가 끝나자 노아의 아들 셈은 아기를 낳고 ‘아르박삿’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르박삿이 커서 할아버지

의 무릎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왜 세상에 우리밖에 없죠? 이 지구 전체가 다 우리 거란 말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노아는 홍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분명 그들은 홍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은 오랫동안 회자된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홍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수세기 동안 이야기했을 것이다. 실제로 아르박삿의 아버지 셈은 먼 후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홍수 이야기를 직접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았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결코 잡아내지 못하지만 성경도표를 만들어 보면 정말 놀라게 된다.

지금도 전 세계에 약 270개의 홍수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하와이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처음 사람인 쿠니하나가 죽고 오



▶ 아르메니아에서 바라본 아라랏 산 (출처: Pixabay)

랜 후에 세상은 악하고 끔찍한 곳이 되었다.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우였다. 그는 집이 들어 있는 커다란 카누를 만들어서 동물로 채웠다. 물이 온 세상을 덮어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지만 누우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

중국에도 ‘하이킹 클래식’이라는 전설이 있다. ‘푸하이’는 문명의 아

버지이다. 푸하이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딸이 대 홍수를 피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대홍수 후에 그들이 세상의 인구를 다시 증가시켰다.’

멕시코 토텍 인디언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세상은 1716년간 지속되었지만, 가장 높은 산들을 덮었던 대홍

수에 의해 파괴됐다. ‘각스각스라는 이름의 한 가족만 살아남았다.’ 창조에서 홍수까지 성경의 연도를 더하면 1656년이다! 토텍 인디언의 이 전설은 4000년이나 됐지만, 성경의 연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많은 홍수 전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대 홍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를 찾아다니는 전설도 아마 홍수에 관한 전설의 하나일 것이다. 배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 온 세상이 파도 밑으로 가라앉았으니 말이다. 터키 동부에는 아라랏 산이 있다. 러시아 국경에서 12마일 떨어진 이곳은 터키 지도에 ‘노아 영검시’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노아의 큰 배’라는 뜻이다. 그곳을 가리키는 표지판에는 ‘이쪽으로 5km 가면 노아의 큰 배가 나옴.’이라고 적혀있다. 성경은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에 머물렀으며”(창 8:4, NIV)라고 기록하고 있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나이지리아, 코로나19 봉쇄에도 크리스천 공격받아

나이지리아 북동부 플라토주에서, 코로나19로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풀라니족의 무장공격이 크리스천 마을에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최근 오픈도어가 전했다.

바싸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들이 3월 마지막 주부터 벌어져 31명이 죽임을 당했다. 정부군은 항상 공격자들이 떠난 후에 현장에 도착했다.

4월 14일에도 미양고 근처 마이

양가 마을 후라 주거지에 무장괴한들이 침입해 총과 마체트(칼)로 16세 이하의 어린이 4명과 1명의 임산부를 포함하여 9명의 주민을 죽였다. 2명이 부상을 당했고 최소한 33채의 집이 불에 탔다. 이 공격으로 250명의 주민들이 거처를 잃고 생존 수단 없이 마을을 떠났다. 앞서 4월 7일에는 그부라종고 마을이 공격을 당해 34세의 복음주의 교회 목사와 10세 소년을 포함해서 4명이 죽었다. 또 3월 24일에도 이들은 밤에 가정집을 습격해 3명의 어린이들과 2명의 여성을 죽였다.

유목민들에 의해 죽임 당해

바싸 지역에 있는 이리그웨 킹덤 교회 은퇴 목사는 “정부는 계속 안전을 약속하지만 여전히 공격자들이 와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유목민(풀라니족) 민병대와 코로나바이러스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해 집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또 집에서 이 유목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왜 이 유목민 공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

가 안 된다.”며 “이러한 공격 때문에 시골 농부들이 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면 올해 기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GNPNEWS]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요나... 예수 만난 뒤, 복음 전도자로

파키스탄의 요나는 이슬람 성전 전사를 키우는 지하드 훈련소에서 살인 훈련을 받았다. 그런 요나가 성경을 통해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가족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요나를 비난했고, 따로 떨어져서 밥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또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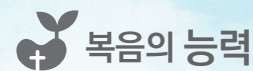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복면을 쓰고 총을 든 남자가 요나가 일하는 가게로 들어와 총을 쏘았다. 요나는 살아남았으나 팔을 절단해야 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 요나의 가족은 기독교를 버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요나는 굴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믿음 때

문에 고초를 겪은 뒤에 파키스탄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파키스탄을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왜 그래야 하죠? 어떤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파키스탄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GNPNEWS]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복음의 능력

위의 것 찾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위의 것은 매우 구체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인간의 이성, 오감, 이런 것들은 이 땅의 기쁨을 주는데, 이런 기쁨에 매료된 자들은 이 땅의 보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고 인간의 철학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위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시를 따르고 영원과 영혼을 위해 살라고 조언한다. [GN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 기도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성도(출처: OpenDoors 캡처)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조명숙** 권사(두암중앙교회)



©복음기도신문

조명숙 권사의 집에 들어서자 조 권사와 동생 조귀례 집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조 집사는 모야모야병과 치매를 앓고 있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기저귀를 차는 ‘아이’가 된 동생을 조 권사가 돌보고 있었다.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동생이 기도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해 일주일에 두 번은 병원 대신 기도모임으로 향한다. 비록 치매로 어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이지만 10남매 중 유일하게 복음을 만난 조 집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동생이다. 조 권사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얼굴이 매우 밝으시네요. 주님이 힘을 많이 주시나 봐요. 주님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10남매 중 장녀예요. 아버지가 작은 엄마까지 얻어서 자식을 얻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엄마를 구박했어요. 엄마의 우는 모습을 늘 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불쌍하지 않았죠. 엄마가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다가 못 참고 대들면 분명 할머니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할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른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결혼하면 시할머니까지 있어도 정말 잘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때는 아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어요. 부품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절망이 되고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너는 큰 딸이다. 네가 행동을 잘못하면 동생이 따라하니까 책임이 무겁다.” 그래서 죽지도 못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동료들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말씀이 꿀맛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하며 놀라웠어요. 저는 그때 저 자신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배운 것도 없지,

가족들은 매일 싸우지, 손은 다쳤지. 그런데 한 교회 청년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주님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

- 절망 중에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셨네요. 은혜네요.

“공장에 다니면서도 새벽 예배에 안 빠졌어요. 그렇게 6개월을 다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켜줬어요. 과자 봉지 사가지고 다니면서 토요일 늦게까지 전도했어요. 아이들이 나 같은 어린 시절을 안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풀 한 포기만 봐도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낫을까 늘 궁금했어요. 사람은 어디서 났을까. 이 세상은 어디서 났을까. 어른들한테 계속 물어본다고 머리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졌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

지 알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뭐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매우 크게 느껴지셨군요.

“하루는 훗날 저의 시어머니가 된 권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권사님과 저는 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이였어요. 그때는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 같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는 실력도 있고 훌륭한 청년도 많았는데 권사님은 저에게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마음먹었던 게 있잖아요. 나는 결혼

하면 시어머니를 정말 부모처럼 모시고, 복을 받고 싶었어요.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시는 것도 룯 이야기잖아요. 시어머니 잘 섬겨서 그 집 안에서 왕이 나왔다는 거요. 그렇게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청년은 형님이 계시지만 자기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기도응답인 줄 알고 그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어머니가 교회에서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교회에서 알던 청년이 아니었죠.”

기도응답으로 여긴 결혼생활,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 어떤 모습이었죠?

“남편은 결혼 한 달 후부터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직장이 서울이었던 남편이 서울에 가고 나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고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래도 불평이 안됐죠.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서 복 받으려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을 신앙의 도움을 받던 분에게 나갔어요. 어머니와 힘든 일이 있을 땐 그분에게 나

어요. 그때 세상 사는 것을 놓고 싶었어요. 막내도 대학에 들어갔으니 내 손이 없어도 되고, 남편도 젊으니까 재혼하면 될 것 같았어요. 주님이 수술할 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고난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있는 딸에게 정신이상이었어요. 딸은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으며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앉혀 놓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힘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루는 아들이 얘기해 주더군요. 우리 딸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았던 거죠. 그 고통을 함께 겪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바보가 되어 버렸어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버스도 탈 줄 모르고, 엄마 떨어지면 불안했었어요. 그때가 대학 다닐 때인데요. 그때 절망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결과가 고작 딸이

상 교회가면 울기만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 가정에 어려움이 너무 컸네요.

“병원도 다녔지만 저는 내적치유도 3년 동안 받았어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서요. 한번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몽둥이로 이불을 두들겨 팼어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둬 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나 내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에게 사랑은 커녕 분노만 일어나니까요. 사랑을 주시던지, 아니면 내 생명 거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라고요. 그런데 순종을 못 하겠더군요. 오히려 나를 곤경에 빠뜨린 사람은 세상에서 승승장구를 하니 더 기가 막혔죠. 물론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됐지만 그때는 어려웠어요.”

-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한 권사님이 중보기도학교를 해보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우리 딸은 바보가 됐지, 남편 퇴직했지. 안타까운 마음에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하니 신청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딸은 훈련을 받을 상태도 아니었는데 혼자 둘 수도 없었죠. 여러 과정 끝에 학교 측의 배려로 강의실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 아이가 강의 시간도 되기 전에 항상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어요. 강의를 들을 때는 완전히 집중하고요. 자기는 훈련생도 아니면서요. 아이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후에 복음학교에도 저와 남편, 딸이 함께 갔어요. 딸은 일주일 동안 머리로 안 감으면서 늘 가장 먼저 강의를 들으러 강의실로 갔어요. 감사하게도 그 복음이 우리 딸을 회복시켰어요. 이후에는 해외로 선교아웃리치도 다니면서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기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조명숙 권사(오른쪽)와 동생 조귀례 집사(제공: 조명숙 권사)

났어요. 말씀으로 권면해주시면 그대로 순종했죠. 그런데 그분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친정에서도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제 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 저의 사정을 알면서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갈수록 강박해지셨죠. 남편을 여의고 일찍 홀로 되셔서 아들이 결혼한 게 마치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많이 어려웠어요.”

-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셨네요. 그 후에 어떻게 됐죠?

“그러다 2006년에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미치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암으로 고통하던 중 자녀까지 정신 이상

- 너무 힘드셨겠네요. 따님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먼저 저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의사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면서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죠. 의사가 “엄마는 지금 수술한 상태이고 이대로 할머니와 계속 같이 살면 엄마 금방 죽는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그래서 분가하라고요. 그러나 분가는 못했죠. 교회만 옮겼어요. 딸도 향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나는 기도하리라 (5)

“기도로 결론을 내라”

신약성경에서 마리아의 찬가(讚歌)가 유명하다면 구약성경에는 한나의 찬가가 있다. 성직자들마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 암담했던 그 시대, 천지의 창조주요 역사의 대주관자(大主觀者)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완성되기도 전에 그녀는 이렇게 선포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니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의 뿌를 높이시리로다 하니라”(삼상 2:10)

한나는 어디서 이런 신앙의 지식을 배웠을까. 주님 한 분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에, 주님과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이었기에, 복음이면 충분한 생명이 되었기에 그녀는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았던 것이다.

육의 여인 ‘브닌나’의 공격을 받으며 홀로 울던 작은 여인 ‘한나’의 이야기는 그저 한 맺힌 한 여인이 위로 받는 이야기를 초월(超越)하여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 통로가 된 이야기였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딤후 3:12).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육에 속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 마지막 때, 선교는 반드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은 승리하실 텐데, 과연 누가 이 역사의 통로가 될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 ‘나는 기도하리라.’ 하며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자, 고난의 신비 속에서 십자가의 결론을 붙잡고 환난이 오면 울수록, 고통이 오면 울수록, 무능함이 ‘나’를 주저앉히면 앉힐수록 ‘그러기에 더욱 기도하리라.’ 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한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요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게 바쳐진 소



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 인생은 어차피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한 세대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 유행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영원한 나라의 변함없는 진리에 운명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

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과 복음만을 전부(全部)로 삼고 ‘나는 기도하리라.’는 결론을 붙잡는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역사는 바뀌고, 주님은 끝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이다. (2018년 1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0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리라!

- 모집 대상**
 - 2020학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17세) 연령대의 학생(18세는 1년 하향지원 가능).
 -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 접수 기간: 2020년 7월 18일(토) ~ 2020년 8월 7일(금)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
 - 2020년 7월 18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0년 6월 22일(월) ~ 2020년 7월 11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2차 면접 및 필기고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020년 8월 29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9월 15일(화) 입학식
- 문의 및 접수처**
 - 010-2644-5725, 010-8459-1718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 hebronschool@hanmail.net
 - 우)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운수양관)

2020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초 4학년~고 3학년 연령의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7.7(화)~15(수) 기간 중 3박 4일간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국 열 개 교회에서 헤브론 캠프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목상과 복음 강의, 복음 스킷, 기도회, 소그룹 모임 등의 형태로 진행될 이 캠프 참여 희망자는 5.25(월)~6.13(토)까지 홈페이지(www.theschoolhebron.org)를 통해 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회비 : 합격자에 한해 안내 ☎ 문의 : 010-2584-5460

G&P 신간 |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싶었다

땅 끝의 미전도종족 재일 조선인 선교 간증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다가가려는 사람은 없다. 바로 재일 조선인이다. 대한민국 국적도, 일본 국적도, 그렇다고 북한 국적도 아닌 사람들, 조선인이다. 2011년 선교사로 일본에 입국한 이성로, 고정희 선교사 부부가 이들 조선인 다음세대를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소박하지만 놀라운 이야기가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

100여 년 전 일제 때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후 해방을 맞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4, 5대 자녀들까지 ‘조선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말’을 간직하기 위해 100년 전 지구상에서 사라진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분류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며, 특별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

해방 이후 이들이 다음세대를 키우기 위해 남과 북에 손을 벌렸을 때, 당시 한국보다 경제 형편이 조금 나은 북한이 이들을 품으며 총련계 재일동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다.

이 선교사 부부는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에 도착해 한 선

고정희 지음 | 나침반 | 206p
1만 원 | 2020

교팀을 통해 ‘우리학교’를 방문하며 이들이 땅 끝의 미전도종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저자 고정희 선교사는 이들을 만나면서 어려웠던 유년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들을 마음에 품어가는 과정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들 조선인 복음화를 꿈꾸며 함께 섬기는 교회의 출현으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동역자는 생겼으나, 여전히 조선인 사역에 누구나 쉽게 참여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 책이 일본 땅의 외로운 나그네를 기도로 품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GNPNEWS]

생명의 변화 그리고 '용서와 화해'

우한코로나로 손주들이 학교에도, 어린이집에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하다. 9살짜리 손자가 부서질까봐 잘 갖고 놀지 못했던 장난감 자동차를 5살 여동생이 지나가다 밟아 반 이상 부수어 놓았다. 큰아이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리려 하자 그 순간 동생이 "오빠 다시 고칠 수 있지? 오빠는 할 수 있어. 난 오빠 믿어."라고 말했다. 분한 얼굴로 자동차를 만지는 큰 아이 옆에서 동생은 "오빠는 할 수 있어."라면서 "오빠. 힘내세요!"라며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주셨을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시 딸은 결혼 5년차에 접어들면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다.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는 더 충격이었다. 나는 그즈음 총체적 복음을 만나고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왜 가정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왜 가정에서는 분노하며 권리를 주장하며 내가 왕 노릇 하려 할까?'라는 질문 앞에 절망하고 있었다. 내 영혼의 고통이 커 딸이 절규를 하며 도움을 청해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 무렵 한 선교단체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팀에서

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왜 가정에서는 분노하며 권리를 주장하며 내가 왕 노릇 하려 할까?라는 질문 앞에 절망하고 있었다. 내 영혼의 고통이 커 딸이 절규를 하며 도움을 청해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 무렵 한 선교단체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팀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때 만큼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거칠고 황량해 '주님'하고 이름도 부를 수 없었다.

아이를 해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올 때가 되었을 무렵,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 아이는 창세전

결혼 전부터 사귀어 온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결혼한 가정을 깨고 아내와 아이들을 불행하게 한 사위도 용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부어졌다. 내가 돌아가고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이고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없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 일생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로 살아온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열심과 영광을 보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입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 그 안에 모든 충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맘 다해 사랑하기를 성령님께서 간구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내 상태와 딸의 상황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6개월간의 훈련과정을 지낼 때 딸은 아이를 잉태한 채 이혼수속을 마치고 큰애와 함께 우리 집으로 짐도 하나 없이 들어왔다. 부모로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이 상황을 받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새로 태어날 아이를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아버지 앞에 올 생명인 것을 말씀해주셨다. 또 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것들을 하나씩 알아듣게 말씀해주셨다. 나는 그 후로 생명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다.

[GNPNEWS]

신희경

그림 묵상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 13:8-9

—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where it produced a crop
—a hundred, sixty or thirty times what was sown.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Matthew 13:8-9

© Blessom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땅에 떨어진 씨는 곧 주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는 유일한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땅의 모습입니까? 좋은 땅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 주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GNPNEWS]

글.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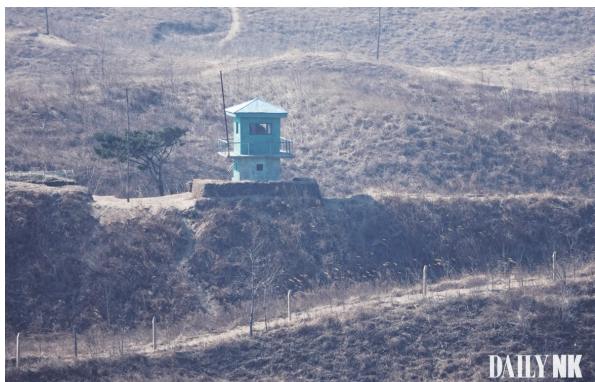
비상방역 기간 중 탈북 시도 주민 총살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이 국가비상방역 기간 중에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을 즉결처분으로 총살형에 처해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이번에 탈출을 시도한 주민은 50대 부부와 10대의 미성년 학생 등 세 명이었고 이들 부부와 미성년 학생은 고모와 조카 사이로 이미 남한으로 탈북한 남동생의 아들(14세)을 데리고 함께 탈출하려다 국경경비대에 의해 발각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의 현지 소식통은 코로나 비상방역조치로 인해 국경 경비가 엄중



▶ 작년 초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의 북한군 초소(출처: dailynk.com 캡처)

한 시기에 탈출을 시도한 자체가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였고 더구나 국가비상방역 기간 중에 탈북을 시도하는 자는 반역죄로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최고수뇌부의 지시가 있는데다 남한행을 전제로 탈북한 경우라 총살형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부부와 함께 체포된 아이는 미성년이라 이들을 부부는 한국행을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다는 반역죄가 씌워져 보위부 내부에

서 비공개로 총살됐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17일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즉결처분에 의한 총살형에 처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먹고 살기 힘들어 탈북하려던 것이 무슨 죄가 되어 총살까지 시키냐며 당국에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NPNEWS]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들, 코로나 발발로 굶주림

중국 북동부 지린성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로 발발하면서 중국 북동부에 팔려 온 북한 여성들이 신분증이 없어 음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림에 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중국 당국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규제하고 추가 통제조치를 마련하면서 성매매로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

이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현재 아주 작은 시장이나 마을에서도 식량을 사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북한 여성은 불법으로 중국에 팔려 왔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 가운데는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여성들도 있는데, 이 북한 여성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살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음식을 사줄 친척도 없고 게다가 신분증 없이 시장에 가면 공안에 신고당해 북송될 수도 있고, 북송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는 실정이다.

북한 여성들은 가난한 중국 남자에게 팔려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을 산 중국 남편은 자기 아내가 흑시라도 체포되어 북송될까봐 두려워하며 아내가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꼭꼭 숨기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의료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 이에 VOM은 그 지역 북한 여성들에게 오디오 성경뿐 아니라 마스크와 의약품, 기타 물품들을 보내주고 있다. 1000위안(약 17만 3000원)이면 한 가족이 7개월 동안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GNPNEWS]



©복음기도신문

해방 이후 부요한 시간을 누린 한국교회에 고난이 오는가?



리처드 웹브란트 지음
| 순교자의 소리 옮김 |
순교자의 소리 | 188p | 2019

해방 이후 자유세계 속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참 부요한 시간을 누려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과한 '순교자의 소리' 창시자 리처드 웹브란트의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금!'이라는 외침이 너무나 희미하게 들렸는지도 모르

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고 말씀하셨다.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필연(必然)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된다.

'지하교회를 준비하라'에서 웹브란트 목사는 14년 수감생활 중 3년 동안 지하 9m아래 독방에 갇혀 있을 때의 경험을 나누었다. 한 마디도 들리거나 말해 본 적이 없고, 책도 없었으며 바깥세상 목소리는 멈춰버렸던 그때. 교도관들마저 신발 바닥에 천을 씌웠기 때문에 다가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주입한 약물 때문인지 성경 말씀도 다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주기도문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다는 것만 간신히 기억

이 낮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또한 그는 다짐했다. 자신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신령한 육신으로 겪으신 고난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말이다.

고난에 대비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훈련

자유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루마니아에서처럼 단 하루만에도 대대적인 탄압이 있을 수 있다며 지하교회를 준비하고 고난에 대비하기를 강조하는 그가 일상적인 생활과 사역 속에서 스스로 어떤 훈련과 연습을 했는지를 책 곳곳에서 보게 된다.

일례로 그가 루마니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주일 아침에 교회가 아닌 동물원에 청소년 열댓 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사자 우

리 앞에 서서 말했다.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 때문에 저런 사나운 짐승들 앞에 던져졌다고. 너희도 고난당해야 하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하며 사자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 손에 고통당하게 될 거라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서약하기 원하는지 지금 결정하자고 하는 그의 고백 앞에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각자 고백했다.

감옥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근사한 가구나 꽃들, 아내나 자식들도 없고, 인생을 유쾌하게 할 아무것도 남지 않기에, 언젠가 모든 것을 잃어도 고통스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기쁨을 '포기'하는 훈련을 나름의 정한 방식으로 했던 경험도 나왔다.

또한, 그의 자녀가 서너 살 되었을 때부터 성경 한 페이지와 성자나 순교자의 생애에 관한 책도 한 장씩 읽어준 이야기. 특별히 폭스(Foxe)의 '기독교 순교사화'를 읽

어주면서 자녀들에게도 읽어주라고, 순교자들이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대목에서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된다. 감옥에 갇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그 때가 더욱 복음을 나눌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모스 부호(점과 획으로 단어를 만드는 의사소통)를 통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의 회심한 이야기도 증거하고 있다.

책을 읽는 중,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미래로 상상해 보기도 하고 쉽게 지나쳐왔던 모스 부호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문장들을 눈여겨보며 숙연한 마음으로 다짐하게 된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할 힘이 되신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되기를.

[GNPNEWS]

양동원 선교사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3)

중·고 교과서, 학생들에게 자위와 성관계를 사실상 권장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성인 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나다움 어린이책' 3200권을 한부모 가족 800가구에 지난달 23일 전달했다. 하지만 이 책들은 영유아기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도서에는 "난 콘돔 기면 잘 못 느끼겠어 별로야", "자위는(중략) 절대 끊을 수 없었어" 등의 내용이 담긴 책, 심지어 콘돔,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난관불임술, 정관불임술 등의 피임 방법을 소개하는 책도 포함됐다. 어린이가 보는 책에서부터 벌써 피임과 자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면 그 이상 나이에 다음세대가 보는 성교육 내용은 어떠할까.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자위행위와 성관계를 권장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지구문화출판사의 중학교 보건 교과서(2015) 76쪽에는 학생의 성관계를 위한 피임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 만화로 그려진 학생이 질문한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 그에 대한 선생의 대답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예방하려고 배우는 거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교과서에서 오히려 중학생의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생명인권학부모연합(생인학)은 2018년 12월에 교과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등학교 시기 즈음은 가정을 꾸린 후 출산계획 차원을 전제로 피임을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학교에서 자세한 교육은 지나치게 이르다고 밝혔다. '보건'이나 '도덕·윤리' 시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피임을 가르치는 것은, '기술·가정' 시간의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관점의 피임 교육의 프레임이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성에 관한 교육내용이 학생에게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대로 추진하다 보니 비합리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도 콘돔, 먹는 피임약, 정관·난관수술 등의 여러 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생인학은 "피임 교육이 성인이 된 다음을 전제로 한 것

▶ **함양도 3** > 아래의 만화를 읽고 피임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이상 말해 보자.



▶ 중학교 보건교과서의 학생의 성관계를 위한 피임 교육(출처: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년), 지구문화출판사(p.76)캡처)

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다음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것을 명시해야 하고, 요즘같이 인터넷에 각종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성인이 되면 자기에게 맞는 피임 방법은 스스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피임 방법 교육은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때는 성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 윤리가 결여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치며 피임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학생 때 성관계를 열심히 하라는 독려이자 학생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교과서에서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 절제보다는 성적 자극을 부추기고 있다. YBM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 103쪽에는 자위행위에 대해 "과거에는 이를 문제시하였으나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며 이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인학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위를 바람직한 것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자위행위는 음란물의 이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음란물을 보지 말라는 교육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란물을 보면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육 때문에 실제로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집단 자위행위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

[GN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5. 14 ~ 5. 27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주선 김다경 김선희 김애심 김양숙 김혜신 박상기 박숙자 윤경석 임수진 정금자 정영숙 정윤희 조경미 조명숙 차상복 차인순 차정규 최순덕 최영신 무명

교회 및 단체

김화제일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문연구소 산돌교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안양구터트리교회 오보평강교회 은혜신일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